

한국가스공사사옥

Korea GAS Corporation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공공청사의 새로운 건축형 제시

액화천연가스(LNG)의 장기도입계획에 따라 정부투자 기업으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의 사옥신축을 위한 현상설계 지명을 받은 것은 92년 5월 중순이었다. 새로운 사옥을 위한 건축주측의 설계지침은 첫째, 가스개발 및 비축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회관' 기능, 둘째, 가스개발정보의 조사분석관리를 위한 '종합가스정보센터' 기능, 그리고 셋째, 국내외 가스개발사업의 협력을 위한 회의, 연구의 장소로서 '첨단연구센터'의 기능 등이었다. 당시 우리가 현상설계를 시작하면서 지향했던 목표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가스공사 신사옥을 공공청사의 실용성과 상징성, 즉 업무기능의 OA화에 조화를 이루면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새로운 건축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배치 및 옥외공간 계획

현상설계발표 이후 정림안이 당선되면서 무엇보다도 배치계획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타 사무소의 상징들이 되었지만 당시 한팀이 되어 일했던 서민원, 조남호씨의 도움이 컸으며 사내디자인 심의를 거쳐 기본안(Scheme)이 정해질 수 있었다. 대지는 동서를 장축으로 남향을 바라보며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적절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지의 특성은 우리에게 '자연환경과의 조화'라는 큰 주제를 대하게 하였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건축 형태상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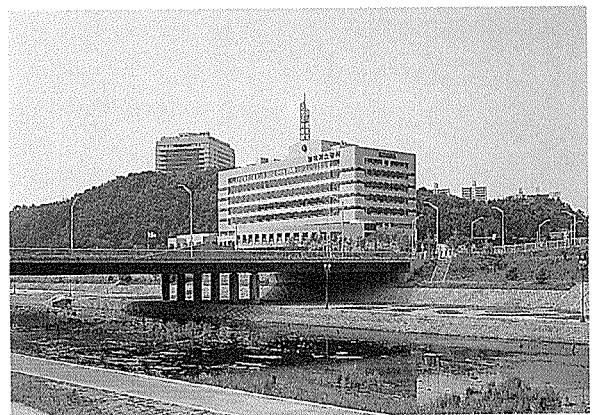
용자의 「자연동화」라는 줄거리로 이어진다. 즉, 자연을 많이 접하고 느끼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최대한 조망을 유지하며 충분한 자연채광을 위하여 건물의 장축배치를 택하였으며 전면의 탄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조경 공간에 자연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마침 대지가 비교적 여유있는 편이어서 모처럼 다양한 조경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특히 내외부공간의 관입을 추구하는 선근기둥, 옥상정원, 중정과 터널형 파고라, 옥외휴게공간과 시냇물, 온실 등의 디자인은 조경부서의 하성한팀장과 이수성대리가 수고해 주었고 건축과 조경이 상호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곳은 근무자들과 방문자들에게도 다양한 옥외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향후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이다.

대지에 건물을 장축으로 배치하면서 도로에서의 진입방향과 건물의 정면성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이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에 보행자를 위한 기능적인 출입구를 두어 이곳에 인지도와 흡인력을 갖도록 시각적인 장식기둥과 반원형 선근기둥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성을 갖는 중심부에는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특별히 캐노피를 조형화하여 주출입구로서의 상징성과 품위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Approach)를 큰 곡면의 매스로 유도하여, 진입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도록 연출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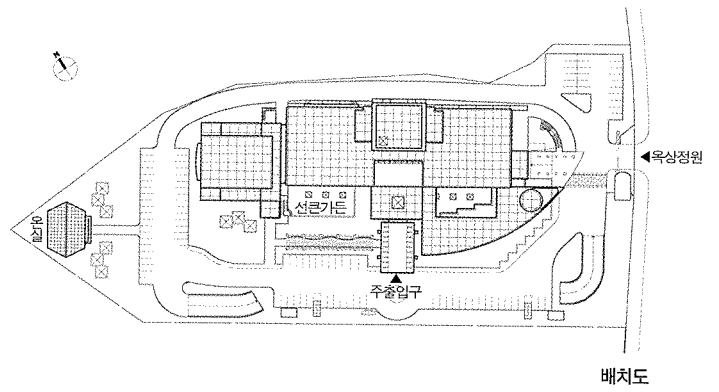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대지면적	16,738.3㎡
지역지구	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업무용지)
건축면적	4,332.91㎡
연 면 적	35,089.01㎡
건 폐 율	25.9%
용 적 륜	123.9%
규 모	지하2층, 지상8층
주요용도	업무시설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바나구이, 물갈기, THK24 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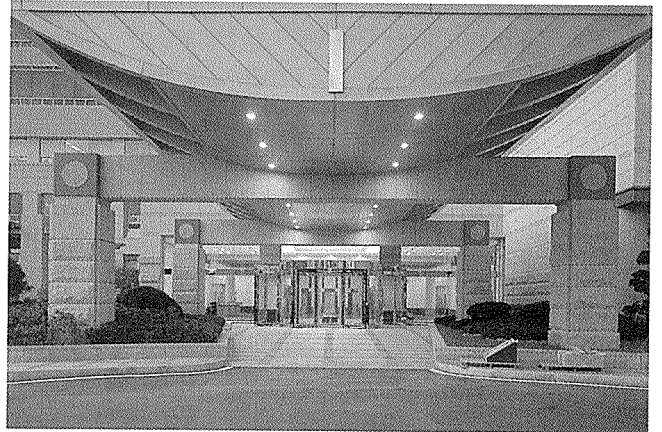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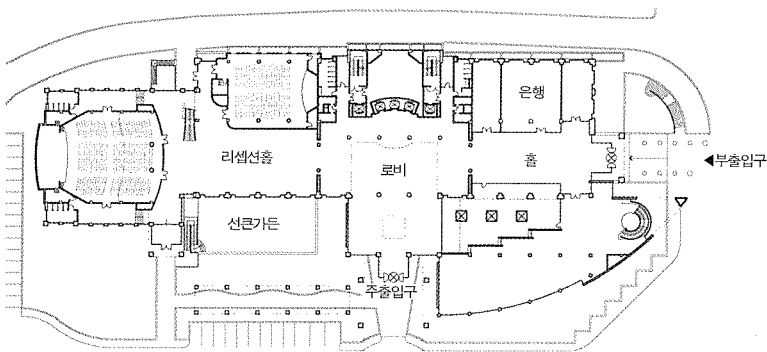
선르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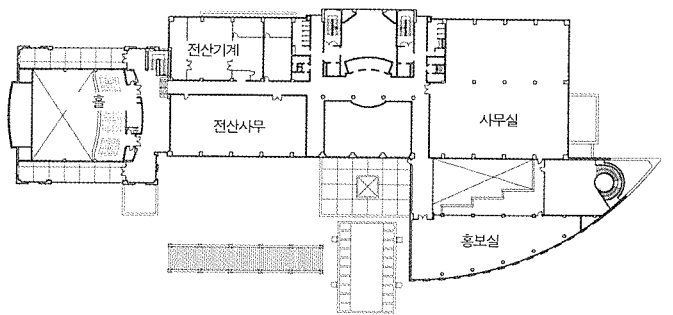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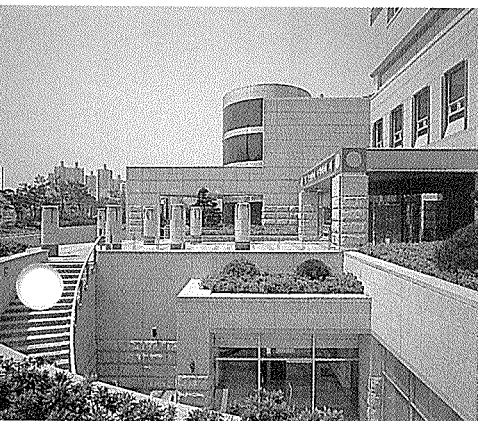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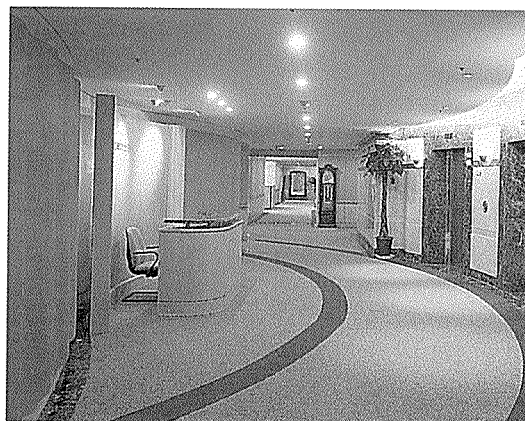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보행자 출입구 및 반원형 선르가든



임원층 엘리베이터 홀



리셉션 홀